



# 프로방스에서 만난 사람들

박석희 교수  
(경기대학교)

## 안내소 직원, 가이드, 민박집 주인

셋이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을 연구차 방문하러 나섰다. 불어는 물론 인사말만 알고 있는 상태로 제법 용감하게 나선 여행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기대 이상의 좋은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여행중에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 새로운 만남이 여행의 커다란 즐거움 아니던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아비뇽 시내에 있는 안내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상당히 널찍한 공간에 각종안내물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몇 걸음 다가서니 앉아있던 직원이 일어서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묻는다. 연구차 이곳에 왔다고 하니 무엇을 연구하려는가, 포도주에 관심이 있느냐, 승마에 관심이 있느냐 등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을 둘러보고 싶어 왔다고 하니, 자동차가 있느냐, 안내를 필요로 하느냐고 묻는다.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마침 여행상품이 있노라고 하며, 안내물 하나를 집어보이며 묻는다. 전화를 건다. 조금 기다리면 차와 사람이 온다고 하며, 유익한 여행이 될거라고 한다. 친절하다. 짧은 순간에 안내를 끝내는 솜씨가 능란하다.

흰칠한 키, 부드러운 얼굴에 웃음을 띄며, 자기가 오늘 오전 안내를 맡은 파스칼이란다. 어디어디를 지나서 예정된 곳을 안내하겠다고... 첫 인상이 믿음직스럽다. 차를 몰면서 좌우에 스치는 경관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준다. 좁은 건물 사잇길을 빠져나와 교외로 접어든다. 그림 같다. 세잔느의 그림속에서 보던 경관들이 펼쳐진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보이는 곳에서는 서행을 하다가 때로는 멈춰 사진을 찍으면 좋단다. 저쪽이 고흐 그림의

무대라고 가리키면서 꺼내온 고흐 그림 복사본을 보여준다. 올리브 열매를 돌로 깨트리고는 보란다. 목적지에서는 가지고 온 안내물을 나눠주며 설명을 하더니 45분간이면 적절할 거란다. 오전 관광이 끝나갈 무렵 우리 일행은 오후에도 이 사람에게 맡기자고 합의를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30여 분간 이어지는 노을의 장관. 하루 일정이 끝나면서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뿌듯하였다. 친절하다. 열심히 해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번에 만난 사람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Le Pavillon Vert (초록색갈 시골집) 바깥주인 필립씨다. 그는 파리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팔고 시골로 내려온 새로운 삶의 개척자. 파일럿이기도 하였고, 길게는 4개월간이나 부인과 함께 요트를 즐기기도 한다는 멋쟁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돈 몇 푼주고 사람을 혹사시키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직장인은 옛날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힘을 준다. 인간정신은 진화한다고. 그 증거로 새로운 문화의 꽃이 이곳 프로방스지역에서 피어나고 있다고, 관광문화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과감히 정리하고 내려왔노라고. 그랬는데, 운이 좋게도 이 지역의 부동산값도 제법 상승하였다고 열변을 토한다.

파리에서 남쪽으로 서울서 부산보다 멀리 떨어진 아비뇽을 핵으로 한 이곳 프로방스 일대에 유럽, 아니 세계의 부호들이 다투어 농촌 별장을 마련하려고 한



단다. 그들은 이제 도시문화에서 한계를 느꼈단다. 오래된 곳, 오래된 물건, 오래된 삶의 방식에서 삶의 안녕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인생은 여유로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자유의 만끽을 통해 즐기는 것 아니냐고. 자기도 이곳에 와서 민박사업을 하며, 또 다른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고 있노라고. 포도주를 연신 따라 주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에서 프랑스 혁명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유를 찾아 투쟁하던 저들이 이제는 오래된 것 속에서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음이 틀림없다.

### 농가민박 안주인

새로운 만남은 여행의 커다란 즐거움임이 분명하다. 프로방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로 안내소 직원, 가이드, 그리고 민박집 바깥양반 이야기를 하고 나니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들과의 만남이 나의 뇌리에 상당히 강하게 박혔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공유하고 싶나보다.

가이드 차로 아비뇽 시가지에서 20여 Km 떨어진 농가에 도착한 것은 어둠이 제법 짙게 깔렸을 때였다. 농가건물이 맨션이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청바지 차림에 머리는 제대로 빗질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는 안주인의 모습은 익숙하다. 짐을 들고 따라올라간다. 높은 계단을 거침없이 오르는 모습이 씩씩하다. 2층 방 앞에서 누구든 한사람이 쓰란다. 서툰 영어지만 알아들겠다. 안도의 숨이 나온다. 다음 층에서 나도 방을 하나 차지한다. 방이 엄청나게 넓다. 스무 평은 됴직하다. 그런데 유리창은 조그만 게 2개 뿐. 불을 켜도 몇 곳만 환하고 상당히 어둡다. 따라 내려간다. 식당과 부엌을 알려주고 아침에는 안쪽에 식사를 준비해 놓겠다고 한다. 그리고 내일 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인근에 있는 작은 타운까지 자기차로 대려다 주겠다고 한다. 첫 날은 그냥 사무적으로 넘어갔다. 피곤하기도 하고,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알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골라들고 모자라면 이야기하란다. 아침식탁에 오른 잼은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대답한다. 작은 물병을 가지고 부엌쪽에 가니 웃는다. 물병을 챙겨두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다가오며 건물에 관심이 많으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자, 따라오란다. 보여줄 게 있다며, 연결된 건물로 들어선다. 전혀 다른 구조다. 천정이 대단히 높다. 300년이나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보여줄 게 있다며, 뒷문을 연다. 그게 파티오였다. 이 지방 고유의 정원양식이란다. 겨울이라 쓸렁하였으나, 다른 계절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나 보다. 내가 열심히 사진을 찍자 다시 부엌쪽으로 가더니 앨범을 펼쳐 보인다. 이집을 지으며 찍은 사진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수영장 공사 장면



▶ 프로방스 지방 고유의 정원양식인 파티오

도 6장의 사진에 담겨있다. 어디서 왔느냐는 등은 묻지 않았다. 가이드가 일러준 모양이다. 그러나 세 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의 내력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이곳 프로방스 지역 농가민박집의 한 단면을 본다. 넉넉하지는 않으나, 삶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차문을 열자 크게 두 마리가 다투어 올라탄다. 안주인이 손을 저으며 뭐라고 하자 내려간다. 덜커덩거리는 시골길을 20분정도 달리니 조그만 타운이 나왔다. Sarrien 이란다. 역시 이곳에도 플라타너스가 하늘높이 가지를 뻗고 있고, 큰 포도주 통이 작은 가로정원의 주인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타고 싶다고 하였더니, 기다리라며, 아줌마가 성큼성큼 달린다. 타조 같다. 조금 뒤에 역시 뛰어 온다. 마침 자전거포가 문을 열어 가능하단다. 짐은 레스토랑에 맡길 수 있다며, 앞서더니 제법 건장한 남자와 연거푸 볼 키스를 한다. 돌아보며 자기 친구란다. 어떤 친구인가 궁금하였지만 물어보지는 못했다. 다음에는 물어 볼 수 있을 거다. 아줌마와 헤어질 시간이다. 어떻게 헤어지는 게 그럴싸한가를 생각도 해 보다가, 그냥 고맙다고 즐거웠다고 하고는 차로 향하는 안주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서로 서운함이 표정에 담긴다. 안주인도 동양에서 온 우리들과의 만남이 신기하고 즐



거웠음이 분명하다. 말보다는 행동과 표정으로 친절을 표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역력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 필립씨와 그 부인

아무래도 프로방스에서 만난 필립씨와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다. 단지 평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어제 만난 친구도 첫마디에 “생활이 정말 재미없다. 변화를 하기는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점심을 같이하고 헤어졌다. 이리고 사는 사람이 한둘일까 싶다.

필립씨에게 누가 먼저 시골에서 살기로 결정하였냐고 물었다. 둘이서 쳐다보더니 남편이 말을 받는다.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다음에 부인을 설득하였단다. 부인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에는 어려웠단다. 둘 다 잘나가는 일벌레들이었단다. 세계를 헤집고 다닌 모양이다. 남편은 자그마치 40여 개 국에 이른다고 한다. 부인도 일본과 동남아에까지 사업차 다녀왔다고 한다. 그러다 생각했단다. 이리다 말건가 하고, 이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고, 부인의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젊어 보인다. 3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하자 크게 웃는다. 나중에 다시 나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가 던졌다. 47 아니면 48이라니까 그제서야 47세란다. 나는 그 부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얼굴의 진주름을 보았고,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데 근거를 두었다. 갱년기에 접어들 나이 아닌가. 오히려 막바지에 기를 한번 써볼 나이. 그래서 남편도 그래 알았으며, 지고 마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닌가.

세 번째 빈 잔을 들고 남편에게로 간다. 남편이 눈치를 주나보다. 그러자 자기는 오늘 일을 많이 하였으며, 마셔도 된다. 건강이 문제인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잔을 받아 자리에 앉더니 이야기에 끼어들기도 한다. 부엌에는 부인만 몇 번이나 들락거린다. 그래서 물었다. 남편은 부엌일을 하

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전공분야가 다르단다. 나더러 부엌에 가냐고 되묻는다. 나도 당신과 같다고 하니 그러냐고 반긴다. 사실 그 집 요리는 평균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부인의 솜씨가 낫다고 하였다. 부인이 건축기사라고 하여 포스트모던 양식에 대하여 물었더니 거실 책장에서 책을 한 권 뽑아온다. 한참 뒤적이다. 아마 누가 창시자인가를 찾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비뇽 떼제베 역사의 특이한 모습이 그런 양식이 아니냐니까 그것은 모던 양식이라고 한다. 그렇다. 이곳에는 포스터모던 스타일이 끼어들 자리가 없나보다. 우리가 너무 요란을 떨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스친다. 시골은 시골다워야 한다는 걸 저들은 실천하고 있나보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일행 한명이 나가고 또 한명이 따라나갔다. 좀 지나도 오지 않는다. 화장실에 갔었거니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인이 들어온다. 두 방에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단다. 잇달아 한명이 들어오며, 한사람이 머리가 아파 일찍 자겠다고 한단다. 부인은 벌써 눈치를 챈 모양이다. 나오는데 아스피린이라면서 한 알만 먹게 하라며 통을 건네준다. 첫 해에 800명이나 되는 손님을 받다보니 신경을 쓰는 수준이 높아진 걸까? 집을 떠나려 차에 짐을 싣고 나니 우리 일행더러 배경을 잡고 서보란다. 카메라로 찍어 보내주겠다고. 차가 떠나자 손을 흔들다가 들어간다. 오스트리아 귀족집안 출신이었다. 변호사인 아버지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아버지가 보시던 책들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어쩐지 상당히 품위가 있어 보인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 시골에 와서 집을 설계하고 뼈대는 인부에게 맡기고 내장은 부부가 하였단다. 정원도 좀 색다르게 디자인을 하고, 작은 나무들을 심어두었다. 이곳에 두 사람의 왕국을 가꾸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은 즐거움의 연속이라고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돈다. A



◀ 민박집 안주인은 와인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건축기사인 필립씨 부인이 ▶ 설계하고 부부가 함께 지은 지택